

무카이시마(Mukaisima) 방적

- ‘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독자적인 실’ 적극 개발

무카이시마(向島) 방적은,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는 팬시 안(fancy yarn)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. 고객의 요망을 받아들인 상품개발 뿐만 아니라 자사 공장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, 특히 ‘눈으로 볼 수 있는 변화’에 중점을 둔 실을 개발할 방침이다.

동사(同社)의 팬시 안은 슬럽(Slub)사인 ‘순코(Shunko, 春光) 슬럽(slub)’이 안정적으로 계속 판매되고 있는데 자사 공장의 기술력을 한층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‘잔털실(의도적으로 잔털을 많이 만든 실)’이나 정방단계에서 실에 마디를 만들어 붙인 ‘슬럽사’ 등과 같이 ‘눈으로 볼 수 있는 변화’가 있는 특수직장사의 개발에 도전하려는 계획이다.

무카이시마 방적은 “유저(user)의 요망에 따라 신상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자사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자에게 남다른 자기만의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도 앞으로 독자적인 상품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”고 포부를 밝혔다.

